

# 최상백 회장, 도별 순회 양돈인 간담회 가져

- 양돈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곧 대책 마련

- 홍보부 -

**본**회 최상백 회장이 각 도협의회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돈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협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도별 간담회에는 전·현직 도협의회장과 지부장, 원로 양돈인 및 지역 양돈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도별 순회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그 동안 지역 양돈업계를 비롯, 양돈업 전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양돈을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최상백 회장에게 적극 건의했다.

본회는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종합한 후 빠른 시일내에 해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별순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중복내용은 삭제)

## ■ 전라북도 양돈인 간담회

전북도협의회는 지난 3월 19일 전주·원주 지부 회의실에서 도협의회를 열고 최근의 양돈업계 동향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도협의회에는 본회 최상백 회장을 비롯 노영한 전

무,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유주성 본회 이사, 박영식 전 전북도협의회장, 김영범 전 전북도협의회장 및 각 지부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운중 군산지부장은 분뇨처리 보조금 지원을 다음해 돈사신축분을 포함해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오균호 고창지부장은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으로 수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가배합에 대한 시설비를 금년부터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 경상북도 양돈인 간담회

경북도협의회는 지난 4월 1일 본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을 비롯 김천지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주지역의 최운지 회장은 돼지고기 생산자 직매장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건년 안동지부장은 금년도 정부지원 사업비가 확정안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제성 있는 방법을 협회가 지도해 줄것을 건의했다.



지난 4월 9일 본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양돈 원로들과의 간담회, 경기도 간담회에서 이공훈 평택지부장은 돈사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돼지도 보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 ■ 경상남도 양돈인 간담회

경남도협의회는 지난 4월 2일 김해 상아그릴 5층 회의실에서 최영렬 경남도협의회장을 비롯 박재근 본회 고문, 김차용 도축정과장, 한영섭 부경양돈조합장, 신태식 전 부경양돈조합장, 하오조 전 도협의회장, 김위진 전 이사, 김해시 축산계장, 조봉희 전 마산지부장, 방기언 등 양돈업계 원로들과 이봉우 거창 지부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출 돼지고기에 대한 결제기간이 늦다고 호소하고 정부의 지원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비를 지원해 줄 것과, 양돈산업이 사양화되어 사육두수가 줄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 그리고 분뇨처리시에도 농사용전기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 ■ 전라남도 양돈인 간담회

전남도협의회는 지난 4월 3일 광주 전남 양돈

축협 회의실에서 기정도 고문, 전재명 본회 부회장, 최희태 전남도협의회장, 김태환 전 이사, 최채우 전 이사, 김수남 은성축산 대표를 비롯 무안, 광주, 구례, 보성, 목포지부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희태 도협의회장은 양돈농가가 가축분뇨를 비료로 팔 수 있도록 축협도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오세권 무안 지부장은 가축분뇨의 액비 살포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수출장려금 지급을 빨리해줄 것도 건의했다.

### ■ 충청남도 양돈인 간담회

충남도협의회는 지난 4월 7일 대전 충남 양돈 축협 회의실에서 김건태 본회 부회장, 김현병 도협의회장을 비롯 송건섭 대전 충남 양돈축협 조합장, 서천지부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본회 김인식 이사는 "최근 양돈 농가들이 발육 불량돈은 축협 공판장에, 규격돈

과 수출돈은 지방 상인에 출하하여 축협 공판장의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만수 본회 감사와 이종구 서산 태안지부 전 지부장은 시세 발표에 규격돈만 따로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충청북도 양돈인 간담회

충북도협의회는 지난 4월 8일 청주시내 음식점 흥도회촌에서 김철수 도협의회장을 비롯 원용주 제천시부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용주 제천시부장은 공동방역사업단의 백신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협회는 이를 시정하도록 농림부 등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 경기도 양돈인 간담회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4월 9일 본회 5층 회의실에서 이명복 본회 부회장과 윤상의 여주지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기도 협의회에서 이공훈 평택지부장은 돈사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다고 밝히고 돼지도 보험에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상의 여주지부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총액의 몇%를 대손 충당금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 14일 제주도에서 열린 간담회,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95년 이전에 용자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 ■ 제주도 양돈인 간담회

제주도 협의회는 지난 4월 14일 서남지부에서 박성화 도협의회장을 비롯 김상호 본회 이사, 이문하 남제주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95년 이전에 용자 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문하 남제주지부장은 양돈농가들이 협회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유치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가배합 사료 제조·이용을 추진중인데 양돈진흥사업회에서 이중수수료 부담 없이 프리믹스를 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최상백 회장은 이날 김충세 전 제주도협의회장에게 재직기념패를 전달했다. **養豚**